

목포시, 한국알루미나 공장 허가 결국 불허

시민들 “市 기업유치 의지 없다” 성토

한국 알루미나, 법적 대응속 영암·무안에 부지 물색

목포시 산정농공단지내 한국알루미나 공장허가와 관련, 시가 지난 12일 최종 불허처분을 내려 향후 기업유치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목포시와 한국알루미나 등에 따르면 당초 공단내에 국내 최초의 특수 알루미나 공장이 가동될 경우 25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천억원의 매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장 인근 주민들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 때문에 주거환경

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시가 불허처분을 하는 바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랐던 대다수 목포시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한국알루미나는 부지매입에 따른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들어 목포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영암이나 무안 등 인근 지역에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

는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부지매입 중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에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영향평가까지 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어놓고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불허처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대체 목포시가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산동 조모(46)씨는 “어렵사리 유치한 기업에 대해 공감허가도 내지 못한 목포시가 어떻게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목포시는 당분간 기업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다른 부지를 선정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공식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한편 목포시는 한국알루미나 유치를 위해 산정농공단지내 구 남양어방 부지 5만2천24㎡를 업체측에 매입 중개했으며, 취득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4천100만원을 들여 지난해 전남환경연구소와 영산강환경관측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해 주민 거주생활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남도 전통명주’ 뽑는다

전남도, 담양 대나무축제때 ... 기양주도 출품 가능

담양에서 전남지역 우수 전통 명주를 가린다.

전남도는 15일 도내 우수 전통주를 발굴해 세계적인 명주로 육성하기 위해 ‘제1회남도 전통명주 선발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담양 대나무축제장에서 개최되며,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제조된 남도 전통주를 위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주주 제조방법 등을 기재해 관할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번 대회에 제조허가를 받고 시판중인 제품뿐만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家釀酒)도 출품이 가능하도록 해 숨어있는 전통 명주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술맛 감정사와 관련대학 교수, 디자인전문가 등이 총동원돼 심사

에 참여하며 평가와 컨설팅도 함께 실시해 남도 전통주의 산업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많은 일반 관람객들도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우리 술을 이해하고 우리 전통주를 사랑하는 계기를 만들어 다양

한 남도 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맛·향·색깔·포장디자인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게 되며, 우수 전통주로 선발되면 생산 기반시설 지원, 각종 국내외 식품 전시회 출품, 홍보기획물 제작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지도 제고 및 명품주로 육성된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선발대회와 병행해 도내 우수 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5월 2~7일) ▲함평 나비축제(4월 24~5월 10일) ▲강진 청자문화제(8월 8~16일) 등에 ‘전남 전통명주 홍보관’을 운영해 국내외 관광객을 통한 전남 전통주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권일기자cki@



완도 청산도의 봄

15일 완도 청산도 돌담 사이로 난 황톳길을 자전거 타고 달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봄이 묻어났다. 완도군은 이곳에서 다음달 19일 ‘제1회 세계 슬로우걸기 축제’를 개최한다.

<완도군청 제공>

함평 나비대축제 기간에

다문화 여성 음식 경연대회

전국의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출신 국가의 화려한 음식문화를 선보이는 요리 경연대회가 함평 나비대축제 기간동안 열린다.

함평군은 제 11회 함평 나비대축제 기간인 오는 5월 1일 나비대축제 주무대에서 전국 다문화 가족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안겨 주고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축제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됐다.

이 행사는 전국의 다문화 가족 중

각 나라별 2팀으로 총 25개 팀이 경연을 벌이게 된다.

참가자격은 다문화 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팀별 최대 4인의 참가자 중 1명은 반드시 출신 국가의 의상을 입고 참가해야하고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이 참가할 경우 가산점을 준다.

참가신청은 자국어 및 한글로 작성된 요리 설명서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오는 27일까지 함평군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부서(061-320-3355)와 함평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061-324-5431)로 하면 된다.

/함평=박영민기자 pyj4079@

완도 영진수산 ‘수출상’

전북 도에 240만불 수출

완도의 대표 수산물인 전복을 일본에 수출해 온 영진수산(대표 홍정민)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에서 수산물분야 수출상을 받았다.

영진수산은 지난해 일본에 전복 239만6천 달러 상당을 수출한 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수출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7년 7월 법인을 설립한 영진수산은 연간 400t의 전복을 국내에 유통하고 일본에는 60t을 수출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출량을 확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426명 보상·39명 소송중”

한센인 변호인단 고희서 소송 보고대회

일제강점기 소록도 등에 강제 격리된 한국 한센인들의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14일 고희국립 소록도병원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었다.

박영민 변호사(한국변호단 단장)는 “소록도 거주자 124명을 대리해 2004~2005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센병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은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변호인단은 2004년 8월 일본 정부가 소록도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본 법원은 “소록도 자립원이 한센보상법 상의 ‘국립 요양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한국·일본 변호인과 한센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규탄행동을 진행한 결과 일본회회는 2006년 2월 소록도를 포함한 국의 한센병 요양소를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한센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고희서 변호사는 “변호단이 전국에 퍼져있는 보상청구인의 진술서 및 입증 자료를 수집해 일본 후생성에 보상을 청구한 결과 현재까지 448명의 보상청구인 중 426명이 보상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입증자료가 부족한 미인정자 22명과 보상청구 대가자 17명에 대해서는 차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희서 변호사는 “변호단이 전국에 퍼져있는 보상청구인의 진술서 및 입증 자료를 수집해 일본 후생성에 보상을 청구한 결과 현재까지 448명의 보상청구인 중 426명이 보상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참관단’ 발족

무안경찰서

무안경찰서(서장 민갑룡)는 최근 시민, 종교, 사회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발족식을 했다. 이날 발족한 ‘시민참관단’은 주최 측의 불법행위 및 경찰측의 과잉대응 행위를 감시함으로써 중립적 위기 조성 및 평화적인 시위 문화 정착에 앞장서게 된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시위 참관단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의 초석인 집회시위 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성수기자 dss@

매화꽃 구경하고 희귀 우표 보고

광양우체국 매화축제로 우표전시회

‘매화마을에서 편지로 봄 소식을 전하세요!’ 광양우체국(국장 송영수)이 광양 매화문화축제장(14~22일)에 우표 전시회와 편지쓰기 행사를 마련,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우표전시회는 꽃과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우표 1천 500여 점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우표수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 편지쓰기 행사는 관광객이 직접 쓴 편지에 매화꽃이 디자인된 기념 일부인을 찍어서 우체통에 넣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지쓰기 행사 참여자에게는 매화가 도안된 편지지와 엽서, 나만의 우표가 무료로 제공되며, 하루 이용자가 800~900 명에 달한다. 송영수 국장은 “앞으로도 지역행사에 우체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경제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11-635-7939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승공인중개사' (Daesung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2-954-7700 and listings for '수원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표성 봉규' (Representative Bonggyu) with contact info 165-07-293 and multiple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383-5221 and listings for '32억빌딩급'.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변영공인중개사' (Byeong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2-531-4665 and listings for '모텔'.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심일부동산' (Daedong Sim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223-1140 and listings for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Advertisement for '해경법률경찰' (Maritime Law Police) with contact info 225-2685 and services for legal and police matters.